

車·반도체株 담는 개미… 외국인은 9개월 연속 매도행렬

상반된 투자전략

이달들어 개인 SK·삼성 3.6조 담아
현대차·기아 등 시총 상위종목 매수

외국인, 한국전력·카카오 등 사들여
관세리스크 적은 내수업종 위주 접근

4월 들어 코스피가 3% 가까이 오르는 동안, 개미 투자자(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에 차이가 있었을까. 메트로경제가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코스피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날의 개인 순매수(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 상위 종목을 분석한 결과, 상승장과 하락장을 가리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성장주를 사들이는 전략을 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리스크가 잠재해 있지만, 동학 개미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반면, 외국인은 전력·통신 등 내수업종에 집중하며 위험 회피에 나섰다.

◆삼성전자, 개미 ‘원픽’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1조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8245억원, SK하이닉스를 1조7318억원 순매수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5575억원), 기아(2048억원) 등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대형주의 가격 하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반도체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모습이다.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개별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은 간접적으로, 자동차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상호 관세 리스

크에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해 실적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3.46%, SK하이닉스 4.56%, 현대차 4.16%, 기아 3.90%씩 하락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주목된다.

반도체 업종은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주가 하락은 설비투자(capex)에 대한 불

확실성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 정책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나, 금일 구글 실적 발표에서 설비투자 전망치가 유지돼 이러한 시장의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도 각각 0.86배, 1.15배로, 이미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만큼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몸 사리는 외국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택지는 전혀 달랐다. 외국인들은 한국전력(2118억원), 카카오(1814억원), SK텔레콤(1005억원), 에이비엘바이오(977억원) 등을 가장 많이 담았으며, 국내 증시에서 9개월 연속 순매도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동시에, 관세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내수업종 위주의 접근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우려가 높아진 4월 국내 주

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계·유통·IT하드웨어·반도체·화학 등을 순매도하고, 유틸리티·통신·필수소비재 등 방어적 업종만을 순매수 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수출 감소뿐 아니라 대중 무역수지 등 중국과의 경합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일부 숙고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위험자산 선호가 바로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채권은 지난 3월까지 60조원가량 순매수했다.

허 연구원은 “국내 수출과 기업이익이 바닥을 지날 때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출 바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코스피 기업이익 추정치도 그만큼 낮지 않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SKT 해킹’에 유심·경쟁사 통신株 ‘들썩’

유심공급 엑스큐어 2곳 등 상한가
KT 주가 52주 최고가 경신하기도

“불안해서 안 바꿀 수가 있나요. 유심 바꾸려고 점심도 못 먹고 2시간 넘게 기다렸네요.”,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재고 소진이라니 허탈합니다.”

SK텔레콤(SKTEL)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의 후폭풍이 통신업계와 증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SKT 고객 신뢰 하락으로 인한 이탈 수요 기대가 커지면서 KT(+1.79%), LG유플러스(+3.75%) 등 경쟁 통신사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한편, 유심(USIM) 관련 부품업체들의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SKT은 지난 18일 가입자 유심 관리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고객 유심 고유 식별번호 등 개인정보가 탈취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SKT는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전 고객을 대

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했지만, SKT가 다음 달 말까지 추가로 500만개 유심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전체 교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가입자 수 2300만명에 대비해 유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유심 제조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SKT의 유심 공급사인 엑스큐어와 유비벨룩스는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한솔인티큐브(+29.83%), 코나아이(+6.53%) 등 다른 유심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가 SKT의 신뢰성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있다. KB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들이 SKT 인증을 중단하는 등 부정적 여파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으며, 고객들은

집단소송 준비와 함께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에 개설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는 개설 이틀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경쟁 통신사인 KT, LG유플러스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가입자 일부가 SKT 이탈을 고려할 경우, 대체 통신사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SKT 해킹 여파에 반사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KT는 이날 장 초반 5만 2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통해 해킹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시 100% 보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고객 불만과 사회적 신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호실적에도 목표가 ‘뚝’… 증권가 반응 냉랭

‘관세전쟁’ K-기업에 발목
현대차·SK하이닉스·LG이노텍
깜짝실적에도 목표주가 줄하향

최근 국내 경제에 잿빛 그림자가 드리우자 상장사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현대자동차 보고서를 낸 증권사 18곳 중 8개사가 목표가를 내렸다. LG이노텍도 16곳 중 9곳이, SK하이닉스는 19곳 중 4곳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 세 기업 모두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증권사의 전망은 오히려 비관적이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4조 4078억원, 영업이익 3조6336억원으로 1분기 중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정책이 현대차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남준신 DB금융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2분기에 미국향 한국 공장 수출 감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반영되

며, 관세 부과 등 차량 판매에 있어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목표주가 하향은 2025~26년 실적 추정치에서 관세 25%에 대한 부담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고대역폭메모리(HBM) 판매 확대 등으로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였던 6조6000억원을 10% 이상 상회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157.8% 급등했다.

하지만 증권가의 반응은 냉랭하다. 관세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하반기 수요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품목별 관세가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하반기 물량을 2분기로 앞당겨 선 주문할 가능성 높다”며 “이에 따라 2분기 실적은 연간 기준으로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는 수요 조정에 따른 실적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하은 기자

메리츠증권, 여의도·강남에 PIB센터 출범

고객자산가·리테일 법인시장 공략

메리츠증권은 고객자산가와 리테일 법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PIB(프라이빗뱅킹+기업금융)센터 2곳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여의도 IFC 본사에 위치한 PIB센터는 리테일 법인 고객을 중점 공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했다. 업계 베테랑으로 꼽히는 세 명의 공동 센터장이 본사 PIB센터를 이끌게 된다.

가장 먼저 영입된 이진주 센터장은 삼성증권 기업금융 지점장 출신으로,

금융상품과 함께 기업금융(IB) 연계딜을 활용해 법인 영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인물이다. 메리츠증권에 합류한 이후 PIB센터의 영업 체계를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번째로 영입된 황화연 센터장은 글로벌 자산관리(WM) 강자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에서 WM부문을 역임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험과 법인부터 고객자산가 대상 영업까지 감정을 두루 갖췄다.

마지막으로 영입된 최병준 센터장은 골드만삭스증권 글로벌마켓 부문장, 벤



메리츠증권 사옥 전경.

처캐피탈 회사인 더웰스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을 거쳐 메리츠에 합류했다. 기관, 벤처캐피탈(VC)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 솔루션 차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하은 기자

머니마켓액티브 ETF 순자산 6조 돌파

삼성자산운용, 상장 9개월 성과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후 약 9개월여 만에 순자산 6조원을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에만 약 2조원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개인 투자자들도 1907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성장 배경에는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 운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 등 신용도가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 운용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원관희 기자 wkh@